

『金匱要略』중 肉類飲食攝取의 禁忌에 관한 研究

金大軾·李正泰·尹暢烈

關於金匱要略中肉類飲食攝取禁忌的研究

金大軾·李正泰·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學專攻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通過對『金匱要略·禽獸魚蟲禁忌并治篇』中“禽獸禁忌并治”的研究，得出如下結論。長期以來，古人在通過藥餌攝生的同時，亦非常重視飲食的衛生和禁忌問題。在飲食方面，當禁止攝取與當令季節之臟器具有五行相剋關係的臟器，亦要禁止食用每個季節的當令臟器，如春不食肝，夏不食心，秋不食肺，冬不食腎，四季不食脾。關於心臟，因認為其乃神藏之所，故主張不可食用。

另外，本篇提示了肉類及鳥類飲食禁忌情況和確認判斷其新鮮度的具體辦法，同時提示了飲食腐敗的肉類和鳥類之後會出現的病症，以及相應的解救治療方法。而且，本篇還說明了一同食用則對身體有害的食物，并警告大家不要食用外形非常古怪奇異的動物的肉。

最後，本篇對馬肉和牛肉進行了比較詳細的說明，提示了馬肉中毒時要煎服香豉和杏仁的湯液來解毒，牛肉中毒時則要煎服甘草的湯液來解毒的治療方法。

關鍵詞：禽獸禁忌 禽獸中毒 解毒·治療方藥

I. 緒論

『金匱要略』의 “禽獸禁忌并治篇”은 주로 禽獸類의 動物性 음식 섭취의 禁忌事項과 이와 같은 食物의 不當攝取로 인한 副作用이나 中毒이 발생하였을 때의 藥物治療法과 藥物解毒法들에 대하여 論하고 있다.

張仲景이 살았던 시대는 傷寒이 猖獗하여 많은 사람들이 生命을 잃곤 하였고, 또한 無知로 인하여 食中毒이 많이 발생하곤 하여 사람들의 健康을 해치는 主原因의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食食物의 攝生에 관하여서는 古人들이 예로부터 重視해왔는데, 일찍이 『周易』의 頤卦를 보면 “君子以慎言語하고 節飲食이라”고 하여 君子는 言語에 삼가하고 飲食을 節度 있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黃帝內經素問』에서도 “上古之人으로 其知道者는 法於陰陽하고 和於術數하며 飲食有節하고 起居有常하며 不妄作勞故로 形與神俱 而盡終其天年 度百歲乃去라”고 하여 飲食有節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金匱要略·禽獸魚蟲禁忌并治』에서는 “肝病禁辛, 心病禁鹹, 脾病禁酸, 肺病禁苦, 腎病禁甘, 春不食肝, 夏不食心, 秋不食肺, 冬不食腎, 四季不食脾. 辯曰, 春不食肝者, 爲肝氣王脾氣敗, 若食肝則又補肝, 脾氣敗尤甚, 不可救. 又肝王之時, 不可以死氣入肝, 恐傷魂也. 若非王時, 卽虛以肝補之佳. 余臟准此.”라고 하여 飲食의 氣味를 論하며 酸苦甘辛鹹의 五味와 肝心脾肺腎의 五臟의 相互 연관성, 또한 五臟의 주요 生理, 病理 機能과 飲食의 不節制로 인한 五臟의 病理상태에 대해서도 자세히 論하고 있다. 그리고 春·夏·長夏·秋·冬의 各 계절에 따른 飲食의 연관성과 谿·羊·牛·馬·彘의 五畜의 연관성, 각기 태어난 年度와 12支神에 따른 禁忌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써 약간의 牽強附會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겸임교수
· 교신저자 윤창열, yooncy@dju.ac.kr
· 채택일 : 2005년 11월 21일

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陰陽五行 理論에 따른 학문적 체계를 상당히 갖추고 있어 구체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凡心皆爲神識所舍，勿食之，使人來生復其報對矣。凡肉及肝，落地不着塵土者，不可食之。豬肉落水浮者，不可食。”이라고 한 것과 “父母及身命本肉，食之令人神魂不安.”이라고 한 것에서 보듯 어는 정도 민간사상이나 그 당시 유행했던 종교사상의 영향을 받았음도 엿볼 수 있다.

이제까지 張仲景의 『金匱要略』에 대한 研究 상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病症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禽獸의 攝取禁忌와 治療에 대한 研究는 상대적으로 未盡한 실정이다. 이에 著者는 『金匱要略』 중 “禽獸魚蟲禁忌并治篇” 중의 禽獸의 攝取禁忌와 異常發生時의 治療方法에 대하여 原典學的 次元에서 고찰과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 方法

본 논문은 『金匱要略』의 原文 순서에 따라 편을 나누었으며, 原文에 吐를 달고, 原文·解釋·校勘·字句解의 순으로 研究하였다. 또한 개개의 原文마다 考察을 두었다.

가. 原文은 中國中醫藥出版社의 『金匱要略校注語譯』을 底本으로 하였다.

나. 본문에 記載된 原文은 原文이라고 名稱하였다.

다.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原則으로 하되 現代化한 것도 있다.

라. 解釋은 原文의 本義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마. 本論文에 使用한 符號는 引用文獻은 「」로, 腳註는¹⁻³⁾ 등의 一連番號로 表記 하였고, 校勘과 字句解는 직접 原文을 記錄하였다.

III. 研究 內容

凡飲食滋味로 以養于生¹⁾에 食之有妨²⁾이아 反能爲害³⁾이니 自非服藥煉液⁴⁾焉能不飲食乎⁵⁾로 切見時人不閑調攝

이아 疾疢競起⁶⁾하니 若不因食而生⁷⁾니 苟全其生⁸⁾이면 須知 切忌者矣⁹⁾라 所食之味¹⁰⁾가 有與病相宜¹¹⁾하고 有與身爲害¹²⁾이니 若得宜則益體¹³⁾하고 害則成疾¹⁴⁾이아 以此致危¹⁵⁾하니 例皆難療¹⁶⁾라 凡煮藥飲汁¹⁷⁾이아 以解毒者¹⁸⁾는 雖云救急¹⁹⁾이로되 不可熱飲²⁰⁾ 諸毒²¹⁾이아 病得熱更甚²²⁾이니 宜冷飲²³⁾之라

【國譯】 무릇 飲食滋味로써 삶을 營養하다보면 飲食에는 妨害되는 것이 있어서 오히려 害가 되지만 煉丹藥을 먹지 못할 바에야 어찌 飲食을 먹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요즘 시대 사람들을 보게 되면 調攝에 익숙하지 않아서, 熱病이 다투어 일어난다. 飲食을 因하지 않고 살 수 없으니, 진실로 그 삶을 온전하게 하려면 절대적인 禁忌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먹은 바의 음식 중에는 病과 더불어 서로 마땅한 것도 있고 몸과 더불어 害가 되는 것도 있으니 만약 마땅함을 얻는다면 몸에 도움이 될 것이요, 害가 되는 것은 病을 이룸으로써 위험에 이르게 하니 대개 모두 고치기가 어렵다. 무릇 藥을 다려 汁을 마심으로써 解毒하는 것은 救急이라고 말할지라도 뜨겁게 마실 수 없으니 모든 毒病은 熱을 얻으면 문득 심해지니 차갑게 그것을 마시는 것이 마땅하다.

【校勘】 自非服藥煉液 : ‘自’는 ‘如’의 뜻으로 假設을 뜻하는 接續詞이다. ‘服藥煉液’은 修道하는 사람들이 먹는 것이니, 세속의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

切見 : 近見의 뜻.

諸毒病得熱更甚: 徐彬이 말하기를 “모든 氣는 熱을 만나면 增加되니, 毒氣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모든 解毒하는 藥은 반드시 甘寒의 品을 써야 한다.”라고 하였다.

【字句解】 閑 : ‘嫻’의 뜻. ‘숙련되다’, ‘익숙하다’의 뜻

疾疢: 疾病의 뜻.

【考察】 本條는 文의 緒論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飲食의 人體에 대한 영향 및 解毒하는 藥物은 마땅히 冷해야 된다는 原則을 말했다. 무릇 음식의 精華로서 삶을 養生하는 것이지만, 禁忌사항을 알지 못하면 음식이 도리어 害가 되는 것인데, 요즘시대의 사람들이 음식으로 攝生 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못해서 음식을 먹고 각종 질병에 걸리는 것을 聖人께서 안타깝게 여겨 그 禁忌

사항 및 解毒에 관한사항을 자세히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다.

肝病禁辛하고心病禁咸하고脾病禁酸하고肺病禁苦하고腎病禁甘이요春不食肝하고夏不食心하고秋不食肺하고冬不食腎하고四季不食脾이라辯曰春不食肝者는爲肝氣旺脾氣敗나若食肝則又補肝하고脾氣敗尤甚하니不可救라又肝旺之時에不可以死氣入肝하니恐傷魂也일이라若非旺時는卽虛以肝補之佳나余臟准此라

【國譯】肝病에는 매운맛을禁하고,心病에는 짠맛을禁하고,脾病에는 신맛을禁하고,肺病에는 쓴맛을禁하고,腎病에는 단맛을禁해야 한다.

봄에는 肝臟을 먹지 말 것이며, 여름에는 心臟을 먹지 말 것이며, 가을에는 肺臟을 먹지 말 것이며, 겨울에는 腎臟을 먹지 말 것이며,四季에는 脾臟을 먹지 말 것이니,辯하여 말해보면, 봄에 肝臟을 먹지 말라는 것은 肝氣가 旺盛하면 脾氣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니 만약 肝臟을 먹으면 곧 더욱 肝을 補하게 되어 脾氣가 무너지짐이 더욱 심해져서 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며, 또한 肝이 旺盛할 때에 邪氣로 하여금 肝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魂을 傷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만약 旺盛한 때가 아니면 곧 虛한 것이니, 補肝함이 좋다. 나머지 臟도 여기에 準한다.

【校勘】肝病禁辛：吳謙이 이르길 “肝에 病이 들었을때 매운 것을 먹게 되면,매운맛이 肺의 氣運을 도와서 金의 기운이 肝을 더욱 누르게 된다. 그러므로肝病에는 매운맛을禁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이는 五行의 相剋을 이해하면 다른 것들도 이에 미루어 알 수 있다.

不可救：吳謙이 이르길 “봄에는 肝이 旺盛해지니 곧 脾가 弱해진다. 그러므로 脾臟을 먹는 것이 마땅하며, 肝臟을 먹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만약 肝臟을 먹으면 곧 肝은 더욱 旺盛해지고 脾는 더욱 弱해지니 救할 수 없게된다.”고 했다

肝旺之時 不可以死氣入肝：陸淵雷가 이르길 “봄에는 자기 몸의 肝臟이 본래 스스로 마땅히 왕성해야 하는데, 먹은 바의 肝은 도리어 죽은 肝이니 내 몸의 肝과 먹은 바의 肝이 서로 同氣相應 하여서 죽은 기운을 끌고 내 肝속으로 들어 오게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字句解】傷魂：肝은 魂을 臧하니, 死氣가 入肝하면 傷魂하게 된다.

【考察】本條文에서는 五臟의 病에는 五味의 禁함이 있다는 것과, 四季節에 따른 飲食의 禁忌와 病이 生하는 病理에 대해 論述했다.

凡肝臟自不可輕啖하니自死者彌甚이라

【國譯】무릇 肝臟은 함부로 먹을 수 없으니, 저절로 죽은 것은 더욱 심하다.

【校勘】自不可：丹波元簡은 “‘自’는 衍文이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하였다.

『諸病源候論·食六畜百獸肝中候』에 이르길 “무릇 禽獸 六畜이 저절로 죽은 것에는 肝에 모두 毒이 있으니 먹으면 안된다. 往往 사람을 傷하게 한다. 그것이 疫病으로 죽은 것이라면 더욱 甚하다. 그 毒의 被害를 입은 사람은 痢疾과 嘔吐를 甚하게 하고 煩悶하며 不安해 한다.”라고 하였다.

【字句解】啖：‘食’의 뜻

彌：‘益’과 같다. ‘더욱’의 뜻

【考察】대개 肝臟은 人體의 중요한 代謝 器官으로서 解毒을 擔當하는 器官으로 반드시 毒이 있는 物質을 많이 貯藏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가뻐이 먹을 수 없는 것이다.

凡心皆爲神識所舍니勿食之라使人來生에復其報對矣라

凡肉及肝이落地不着塵土者는不可食之라

豬肉落水浮者는不可食이라

【國譯】무릇 心臟은 모두 神識이 머무는 곳이니 먹지 말라. 사람으로 하여금 來世에 다시 그 應報를 받느니라.

모든 肉類나 肝은 땅에 떨어뜨려서 티끌이나 흙이 묻지 않는 것은 먹을 수 없다.

돼지고기는 물에 넣어서 뜨는 것은 먹을 수 없다.

【校勘】報對：〈集韻〉“報는 酬(보답하다, 답하여 보내다.)의 뜻이다.”〈廣韻·弟18〉“對는 答한다는 뜻이다.”報對는 곧 酬答한다는 뜻이다.

【考察】佛敎의 관점에서 敍述하고 있다.

고기가 땅에 떨어져서 흙이 묻지 않는 것은 毒氣가 이미 퍼졌기 때문이며, 물에 넣어서 뜨다는 것은 毒氣가 이미 부풀어 올랐다는 것이다.

諸肉及魚는 若狗不食과 鳥不啄者는 不可食이라

【國譯】 모든 肉類와 생선은 만약 개가 먹지 않고, 새가 쪼지 않는 것은 먹을 수 없다.

【校勘】 ① 諸肉 : “諸”는 沈注本에는 “猪”로 되어 있으나 따를 수 없다.

【考察】 무릇 짐승들이 먹지 않는 고기는 반드시 毒이 있으니 먹을 수 없다.

諸肉不乾하고 火炙不動하고 見水自動者는 不可食이라

【國譯】 모든 육류가 마르지 않았고, 불에 구워도 움직이지 않고, 물에 넣으면 움직이는 것은 먹을 수 없다.

【校勘】 ① 『說文·焠部』에는 “焠”는 “炮肉”으로 되어 있다. 고기가 불위에 있다는 뜻이다.

【考察】 肉類는 오래두면 반드시 스스로 마르게 된다. 만약 오래 두어도 스스로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腐敗했다는 뜻이다. 고기는 불위에 얹으면 수축해서 스스로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腐敗했다는 뜻이다.

肉中有如朱点者는 不可食之라

【國譯】 살코기 속에 붉은 점같은 것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없다.

【校勘】 ① 朱点 : 惡血이 모인 것이다.

【考察】 惡血이 모여서 瘀斑이 생긴 것이니 반드시 疫病에 걸린 가축의 고기이다.

六畜肉이 熱血不斷者는 不可食之라

【國譯】 六畜의 살코기로서 뜨거운 피가 그치지 않는 것은 먹을 수 없다

【校勘】 六畜은 牛, 羊, 猪, 馬, 鷄, 狗 이다.

【考察】 현대의학적으로 혈액 응고 작용의 기전에 문제가 있으니 먹을 수 없는 것이다.

父母及身命本肉은 食之令人神魂不安이라

【國譯】 부모나 자신의 本命肉(태어난 띠에 해당하는 動物)은 그것을 먹으면 사람의 神魂을 不安하게한다.

【校勘】 ① 本命肉 : 十二支神 중에서 자기가 태어난 해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考察】 千金方에 보면 本命肉을 먹으면 長壽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食肥肉及熱羹하면 不得飲冷水라

【國譯】 살찐 육고기나 뜨거운 국을 마신 후에는 찬물을 마시지 않는다.

【考察】 冷熱이 서로 섞이면 腹痛하고 吐利하게 된다.

諸五臟及魚가 投地塵土不汚者는 不可食之라

【國譯】 모든 五臟이나 생선을 땅에 던져서 먼지나 흙이 묻지 않는 것은 먹을 수 없다.

【考察】 本條文은 “凡肉及肝”의 條文과 중복되었다.

穢飯餒肉臭魚는 食之皆傷人이라

【國譯】 더러운 밥, 썩어 문드러진 살코기, 냄새나는 물고기는 먹으면 모두 사람을 傷한다.

【字句解】 ① 餒肉 : 문드러진 고기

【考察】 가장 기본적인 衛生生活에 해당된다.

自死肉 口閉者는 不可食之라

【國譯】 저절로 죽은 살코기로서 입을 꼭 다문 것은 먹을 수 없다.

【考察】 스스로 죽은 것은 그 고기에 毒이 있고, 입을 다문즉,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 절대 먹을 수 없다.

六畜自死는 皆疫死니 則有毒이니 不可食之라

【國譯】 六畜이 저절로 죽은 것은 모두 疫病으로 죽은 것이니, 곧 毒이 있는 것이니 그것을 먹을 수 없다.

【考察】 疫毒으로 六畜이 죽음에 이르렀으니 그 고기에는 반드시 毒이 있다. 그러므로 먹을 수 없다.

獸自死北首 及伏地者는 食之殺人이라

【國譯】 짐승이 저절로 죽어서 北쪽으로 머리를 두고 있거나, 땅에 엎드려 있는 것은 그것을 먹으면 사람이 죽게 된다.

【校勘】 ① 北首 : 首는 머리가 향하는 방향이다.

【考察】 죽은후 강직되지 않고, 비스듬히 땅에 엎어져 있는 것은 죽은 짐승에게 靈知가 있는 것이니,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된다.

食生肉飽飲乳하면 變成白虫이라 (原注] 一作血蟲이라)

【國譯】 날고기를 먹고 젖을 배부르게 마시면 變해서 白蟲이 된다.

【校勘】 ① 白虫 : <諸病原候論>에 이르길 “白蟲은 길이가 1촌이다. 생고기를 먹는데서 원인이 된다.”라고 하였다.

② 血蟲 : 腹중의 蟲이다.

【考察】 생고기는 사람이 잘 먹지 않는데 西北人들은 먹는 자가 있다. 脾胃가 약한자가 먹어서 蟲이나 蠱가 되지 않은 적이 없다.

疫死牛肉은 食之令病洞下하고 亦致堅積하니 宜利藥下之라

【國譯】 疫病으로 죽은 소의 고기를 먹게 되면 甚한 泄瀉병에 걸리게 된다. 또한 단단한 積에 이르게 되니 마땅히 利藥으로 下해야 한다.

【考察】 肉毒이 壅滯되고 氣血이 凝滯되어 단단한 痞聚가 된다.

脯藏米瓮中有毒하고 及經夏食之하면 發腎病이라

【國譯】 쌀뒤주 안에 넣어 둔 말린 고기에는 毒이 있으니, 그렇게 여름철을 지낸 것은 그것을 먹으면 腎病이 생긴다.

【字句解】 ① 米瓮 : 쌀뒤주. 濕熱氣가 많이 차 있다.

② 脯 : 말린고기

【考察】 腎은 黑色 이고 其臭는 腐이다. 腐氣가 腎으로 들어가니 그것을 먹으면 腎病이 난다.

治自死六畜肉中毒方이라

黃柏屑을 搗服方寸匕라

【國譯】 저절로 죽은 六畜의 中毒을 다스리는 處方

黃柏의 屑을 찧어 이것을 한 술갈 服用한다.

【考察】 黃柏은 氣味가 苦寒하고 苦味는 燥濕하므로 그 毒을 解毒한다.

治食鬱肉漏脯中毒方이라

燒犬屎 酒服方寸匕라 每服人乳汁도 亦良이라 飲生韭汁三升하면 亦得이라

【國譯】 鬱肉이나 漏脯의 中毒을 다스리는 處方 犬糞을 태워 술로 한 술갈을 服用한다. 每服에 人乳를 넣는 것도 또한 좋다. 生부추의 汁을 三升마시는 것도 또한 좋다.

【字句解】 ① 鬱肉 : 密閉된 容器중에 貯藏되어 있는 肉

② 漏脯 : 눅눅해진 脯

【考察】 犬屎는 溫中하고, 그것을 태우면 火氣를 따라 化하여, 胃土를 生한다. 人乳는 性味가 甘平하고 韭汁은 溫하다. 세가지는 능히 모두 해독을 한다.

治黍米中藏干脯食之中毒方이라

大豆濃煮汁을 飲數升即解라 亦治狸肉漏脯等毒이라

【國譯】 黍米중에 저장한 脯를 먹고 中毒된 것을 다스리는 處方

大豆를 삶은 진한 汁을 몇 升 마시면 곧 풀린다. 이 처방은 또한 狸肉, 漏脯 등의 毒도 治療한다.

【考察】 脯를 가장안에 저장하면 濕熱의 氣運이 족히 鬱蒸해서 毒이 생기게 된다. 대두는 해독하고 五臟의 結積을 散한다.

治食生肉中毒方이라

掘地深三尺하야 取其下土三升하야 以水五升으로 煮數沸 澄清汁하고 飲一升即愈라

【國譯】 날고기를 먹고 中毒된 것을 다스리는 處方

땅을 三尺가량 깊게 파서 그 밑의 흙을 三升 取하여 물 五升으로써 몇 차례 끓여 위에 떠오른 맑은 물을 一升 마시면 그것으로 이내 낫는다.

【校勘】 ① 取其下土 : 土는 黃土를 말한다.

【考察】 黃土의 主治는 解毒藥하므로, 毒氣가 모두 化하게 된다.

治六畜鳥獸肝中毒方이라

水浸豆豉를 絞取汁하야 服數升愈라

【國譯】 六畜과 鳥獸의 肝을 먹고 中毒된 것을 다스리는 處方

물에 豆豉를 담가서 불리어 그汁을 짜서 數升을 마시면 낫는다.

【考察】 豆豉는 맛이 쓰고, 性이 上越하므로 吐하게 한다. 吐하게 되면 독이 풀리게 된다.

馬脚無夜眼者는 不可食之라

【國譯】 말의 다리에 夜眼이 없는 말고기는 먹어서는 안된다.

【校勘】 ① 夜眼 : 말의 足膝上에 생긴 털이 없는 검은 점으로서, 크기는 바둑돌만하다.

【考察】 말의 다리에 夜眼이 없으면 밤에 다닐 수 없으므로, 肝의 毒氣가 承發하지 못하여 막혀서 온몸에 퍼지게 된다. 그러므로 먹을 수 없다.

食酸馬肉하고 不飲酒하면 則殺人이라

【國譯】 酸馬(駿馬)의 肉을 먹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

【考察】 馬肉은 辛, 苦, 冷 하며 酸하므로 毒이 있어 먹고 나면 心悶해지므로 飲酒를 함으로서 解毒하는 것이다.

馬肉不可熱食하니 傷人心經이라

【國譯】 馬肉은 뜨겁게하여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心을 傷하게 하기 때문이다.

【考察】 心은 '午'에 속하며 少陰君火인데 馬도 또한 '午'에 속하며 火에 속한다. 心은 熱을 싫어 하는데 또 뜨겁게 그것을 먹게 되면 火氣가 太盛하여, 心을 傷하게 된다.

馬鞍下肉은 食之殺人이라

【國譯】 말안장 아래의 고기를 먹으면 죽게 된다.

【字句解】 ① 鞍 : 안장 '안'

【考察】 말안장 아래에 둔 고기는 바람도 잘 통하지 않고, 또 땀이 흘러 濕이 쌓이게 되므로 쉽게 상하게 된다.

白馬黑頭者는 不可食之라

【國譯】 白馬로서 머리가 검은 것은,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考察】 <証類本草>에 이르길 “白馬로서 머리

가 검은 것은, 먹게 되면 사람을 癡하게 한다.”

白馬青蹄者는 不可食之라

【國譯】 白馬로서 발굽이 푸른 것은,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馬肉豚肉을 共食飽하고 醉臥는 大忌라

【國譯】 말고기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고, 술에 취하여 자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한다.

【考察】 술에 취해 자게 되면 脾氣를 傷하게 되니 크게 禁했다.

驢馬肉을 合猪肉食之하면 成霍亂이라

【國譯】 당나귀고기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으면 癩亂을 일으키게 된다.

【字句解】 ① 驢 : 당나귀 '려'

馬肝及毛는 不可妄食하니 中毒害人이라

【國譯】 말의 肝이나 털은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中毒될 염려가 있으며 죽게 된다.

【考察】 『본초강목』에 이르길 “馬肝에는 大毒이 있다.”

治馬肝毒 中人未死方이라

雄鼠屎二七粒을 末之하여 水和服하니 日再服이라 ([原注] 屎尖者가 是라)

【國譯】 말의 肝을 먹고 中毒되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을 다스리는 處方

수컷 쥐의 똥을 27개 取해서 이것을 粉末로 하여 물에 타서 하루에 두 번 服用한다.(앞이 뾰족한 것이 수컷의 똥이다.)

【考察】 말이 쥐의 똥을 먹게 되면 腹脹이 생기니 이것은 쥐가 能히 말을 制壓한다는 뜻이다. 대개 쥐는 子水에 속하고 말을 午火에 속하니 水克火해서 物性이 서로 制壓하기 때문이다.

又方이라

人垢을 取方寸匕하여 服之佳라

【國譯】 또다른 處方

사람의 때를 한 손갈 服用해도 좋다.

【校勘】 ① 人垢 : '사람 머리의 때' 이다.

治食馬肉中毒欲死方^{이라}

香豉(二兩○外台作二百粒^{이라})杏仁(三兩○外台作二十枚^라)

上二味^를蒸一食頃^{이라}熟杵之服^하나日再服^{이라}

【國譯】 말고기를 먹고 中毒되어 죽으려 하는 사람을 다스리는 處方

香豉 二兩, 杏仁 三兩.

以上 二味를 30분 정도 삶아서 익으면 찌어 하루에 두 번 服用한다.

【考察】 香豉는 黑豆로 만드는데, 黑豆는 調中하고 下氣하며, 杏仁도 下氣한다.

又方^{이라}

煮蘆根汁飲之^{이면}良^{이라}

【國譯】 또 다른 처방

蘆根의 汁을 달여 마셔도 좋다.

【考察】 蘆根은 味甘性寒 하고 모든 肉毒을 解毒한다.

疫死牛 或目赤或黃^은食之大忌^라

【國譯】 疫病에 걸려 죽은 소의 눈이 붉거나, 혹은 노란 것은 이것을 먹는 것은 크게 禁한다.

【考察】 疫病에 걸려 죽은 소의 눈이 붉거나, 혹은 노란 것은 濕熱의 毒이 아직 흩어지지 않은 것이다.

牛肉共猪肉食之^{하면}必作寸白虫^{이라}

【國譯】 쇠고기를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반드시 寸白虫이 생긴다.

青牛腸^은不可合犬肉食之^라

【國譯】 青牛의 腸은 개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된다.

【校勘】 ① 青牛：水牛

【考察】 犬肉은 大熱한데 牛腸과 같이 먹으면 熱性이 腸에 쌓여, 흩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계해야한다.

牛肺 從三月至五月^은其中有虫^이如馬尾^라나割去勿食^{이라} 食則損人^{이라}

【國譯】 소의 肺에는 3월부터 5월까지 그 속

에 말의 꼬리와 같은 蟲이 있으므로 이것을 잘라 버리고,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먹으면 사람을 해친다.

【考察】 모든 蟲類는 濕熱에 감해서 생기는데, 3월부터 5월까지의 濕熱이 盛한 시기이다.

牛羊猪肉^은皆不得以楮木桑木^{으로}蒸炙食之^나令人腹內生虫^{이라}

【國譯】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는 모두 님나 뽕나무로 삶거나 구워서 이것을 먹어서는 안된다. 사람의 배속에 蟲이 생기기 때문이다.

啖蛇牛肉殺人^{이라}나何以知之^오啖蛇者^는毛發向後順者^가是也^라

【國譯】 뱀을 문 소의 고기는 사람을 죽게 한다. 어떻게 그것(뱀을 문 소의 고기인지)을 아는가? 뱀을 문 소는 그 털이 뒤로 향해서 쏠려 있는 것이 그것이다.

【校勘】 ①啖蛇牛：‘뱀을 문 소’라는 뜻. 毒蛇가 풀속에 있는데 소가 풀을 뜯다가 모르고 뱀을 먹게되면 그 소는 곧 죽는다. 또 뱀이 그 毒을 뱀어 놓은 풀을 먹어도 그 소는 죽게 된다. 이렇게 죽은 소의 고기는 大毒이 있다.

治啖蛇牛肉食之欲死方^{이라}

飲人乳汁一升^{하면}立愈^라

【國譯】 뱀을 문 소의 고기를 먹고 죽으려 하는 사람을 다스리는 處方

人乳 一升을 마시면 곧 낫는다.

【考察】 乳汁은 甘平解毒한다.

又方 以泔洗頭 飲一升愈^라

牛肚細切^{이라}以水一斗로 煮取一升^{하면}暖飲之^{이라}大汗出者愈^라

【國譯】 또다른 處方

쌀뜨물로 머리를 감고 그 물을 一升마시면 낫는다. 소의 밥통을 잘게 썰어서 一斗의 물로 一升이 되게 달여서 따뜻하게 이것을 마신다. 크게 땀이 나는 자는 낫게 된다.

【字句解】 ① 泔：쌀뜨물

② 肚：소의 밥통

【考察】 大汗出者愈는 毒이 毛孔을 따라 나온다는 뜻이다.

治食牛肉中毒方이라
甘草 煮汁飲之하면 卽解라

【國譯】 쇠고기를 먹고 中毒된 것을 다스리는 處方

甘草 달일 물을 마시면 곧 낫는다.

【考察】 <本草綱目>에 이르기를 “甘草는 解毒하고, 모든 藥毒을 푼다.”

羊肉 其有宿熱者는 不可食之라

【國譯】 양고기로서 熱이 어려 있는 것은 그것을 먹어서는 안된다.

【考察】 羊은 補氣하는데 補氣하면 熱이 더 增加하므로 먹을 수 없다.

羊肉 不可共生魚酪食之니 害人이라

【國譯】 양고기는 낱생선이나, 酪과 함께 먹어서는 안된다. 사람을 傷하게 한다.

【考察】 生魚와 酪은 濕熱의 氣運으로 滯脾하는데, 羊肉 또한 맛이 重하므로 함께 먹으면 사람을 傷한다.

羊蹄甲에 有珠子白者는 名羊懸筋이니 食之令人癡이라

【國譯】 羊의 蹄甲속에 흰 구슬 같은 것이 있는 것을 이름하여 羊懸筋이라 하는데, 이러한 양의 고기를 먹으면 사람은 癡이 된다.

白羊黑頭 食其腦하면 作腸癰이라

【國譯】 흰 양으로서 머리가 검은 것은. 그 腦를 먹으면 腸癰이 생긴다.

羊肝을 共生椒食之하면 破人五臟이라

【國譯】 양의 肝을 生椒와 같이 먹으면, 사람의 五臟을 傷하게 한다.

【考察】 羊肝과 生椒는 모두 火에 속하므로 함께 먹으면 사람의 五臟을 傷하게 한다.

猪肉을 共羊肝和食之하면 令人心悶이라

【國譯】 돼지고기를 양의 肝과 함께 먹으면 사

람의 마음이 우울해진다.

【考察】 羊肝은 木臟이고 疏散하는 性質이 있는데, 猪肉은 滯氣해서 生痰하므로 性質이 反對이므로 함께 먹으면 心悶해진다.

猪肉을 以生胡荽同食하면 爛人臍라

【國譯】 돼지고기를 生胡荽와 함께 먹으면, 사람의 배꼽이 문드러진다.

【考察】 生胡荽는 精神을 傷하고, 痼疾을 發하고, 猪肉도 氣를 窮乏하게 하고, 精을 적어지게 하므로 마땅히 함께 먹으면 안된다.

猪脂를 不可合梅子食之라

【國譯】 돼지의 기름은 梅實과 함께 이것을 먹어서는 안된다.

【考察】 猪脂는 滑利하고 梅子는 酸澀하므로 性質이 서로 反對여서 함께 먹을 수 없다.

猪肉을 和葵食之하면 少氣라

【國譯】 돼지고기를 아욱과 함께 그것을 먹게 되면, 少氣하게 된다.

【考察】 猪肉은 사람의 氣를 窮乏하게 하고 葵는 冷利하여 生痰 動風하므로 함께 먹을 수 없다.

鹿肉은 不可和蒲白이아 作羹食之니 發惡瘡이라

【國譯】 사슴고기는 부들의 새순과 국을 끓여 먹으면 안되니 惡瘡이 생기게 된다.

【字句解】 ① 蒲白 : 부들의 새순

【考察】 鹿肉은 性熱하고 부들과 성질이 相反되므로 함께 먹을 수 없다.

麋脂 及梅李子는 若妊婦食之하면 令子青盲하고 男子傷精이라

【國譯】 노루의 기름과 매실이나 자두를 만약에 임신부가 먹으면 자식으로 하여금 青盲이 되게 한다. 남자가 먹으면 精을 傷하게 한다.

【校勘】 ① 青盲 : 眼의 形色은 그대로인데 物體를 볼 수 없는것.

② 麋脂及梅李子 : 사람의 眼은 陰을 體로 삼고 陽을 用으로 삼는다. 麋脂와 梅,李子는 모두 陰에

속한다.

【考察】 孕婦가 陰類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陽氣가 絶無해서 光明이 昇發할 수가 없어서 靑盲이 된다.

麋肉은 不可合蝦及生菜梅李果食之니 皆病人이라

【國譯】 노루고기는 새우 및 生菜, 梅實, 자두와 함께 먹어서는 안된다. 모두 사람을 病들게 한다.

痼疾人은 不可食熊肉하니 令終身不愈라

【國譯】 만성 고질병을 앓는 사람은 곰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된다. 종신토록 낫지 않게 한다.

【考察】 <本草綱目>에 이르기를 “腹中에 積聚 寒熱이 있는 者가 곰고기를 먹으면 영원히 제거되지 않는다.”

白犬이 自死不出舌者는 食之害人이라

【國譯】 흰 개가 저절로 죽었는데, 혀를 내밀고 있지 않은 것은, 그것을 먹으면 사람을 해친다.

【考察】 무릇 개가 죽으면 반드시 혀를 내밀고 죽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반드시 中毒이 되어서 죽은 것이다.

食狗鼠餘는 令人發瘰癧이라

【國譯】 개나 쥐가 먹다 남긴 것을 먹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瘰癧를 發하게 한다.

【考察】 개나 쥐가 먹다 남긴 것에는 그 涎毒(침독)이 남아 있다.

治食犬肉不消하야 心下堅하고 或腹脹口干大渴하고 心急發熱하고 妄語如狂하고 或洞下方이라

杏仁 (一升合皮熟研用이라)

以沸湯三升하야 和取汁하야 分三服하니 利下肉片하야 大驗이라

【國譯】 개고기를 먹고 소화가 안되어 명치밑이 단단해 졌을때, 혹은 배가 脹滿하고 입안이 말라서 크게 갈증이 나고, 心臟에서 급히 熱이 나면서 미친 듯이 망령된 말을 할때, 혹은 설사를 할때, 다스리는 處方

杏仁(一升을 껍질과 함께 익혀서 갈아서 사용한

다.)

물 三升으로 끓여서 汁을 취해서 3번으로 나누어 복용한다. 고기조각이 대변으로 나오면 크게 효험이 있다.

【考察】 犬肉은 杏仁을 畏한다.

婦人妊娠에 不可食兔肉 山羊肉 及鰲 鷄 鴨하니 令子無聲音이라

【國譯】 부인이 임신중에는 토끼고기, 산양고기, 자라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를 먹어서는 안된다. 자식으로 하여금 소리를 낼 수 없게 한다.

【考察】 토끼고기를 먹으면 입술이 缺損되고, 자라고기를 먹으면 목이 짧아지고, 소리를 못낸다. 만약 양, 닭, 오리를 孕婦가 항상 먹게 되면, 자식이 또한 疾病이 있게 된다.

兔肉은 不可合白鷄肉食之니 令人面發黃이라

【國譯】 토끼고기는 흰 닭고기와 같이 먹어서는 안된다. 사람으로 하여금 얼굴이 노랗게 되게 한다.

【考察】 兔는 卯의 동물이고, 白鷄는 酉의 동물이다. 卯酉가 서로 尙한즉 脾氣를 動해서 黃色이 된다.

兔肉은 著干姜食之하면 成霍亂이라

【國譯】 토끼고기는 乾薑과 함께 먹게 되면, 霍亂을 이루게 된다.

【考察】 兔肉은 酸寒하고 乾薑은 辛熱하므로 寒熱이 서로 相搏하여 霍亂이 된다.

凡鳥自死하야 口不閉하고 翅不合者는 不可食之라

【國譯】 무릇 저절로 죽은 새로서 부리를 다물지 않고 날개를 접지 않은 것은, 이것은 먹어서는 안된다.

【字句解】 ① 翅 : 날개 ‘시’

【考察】 새가 죽으면 반드시 날개를 오므리는데 날개를 편 것은 異常한 것이다. 그 고기에 반드시 毒이 있으니 먹을 수 없다.

諸禽肉이 肝靑者는 食之殺人이라

【國譯】 모든 날짐승의 고기로서 그 肝이 푸른

것은, 이것을 먹으면 목숨을 잃는다.

【考察】 靑者是 반드시 毒物에 傷한 것이니, 먹으면 죽게 된다.

鷄有六翮四距者_는 不可食之_라

【國譯】 닭이 날개가 六枚, 머느리 발톱이 4개 있는 것은 먹어서는 안된다.

【字句解】 ① 翮 : 깃축 ‘핵’

② 距 : 머느리 발톱 ‘거’. 닭의 뒷 발톱

【考察】 形態가 怪異한 것은 毒이 있으니 먹을 수 없다.

烏鷄白首者_는 不可食之_라

【國譯】 검은 닭으로서 머리가 흰 것은, 이것을 먹어서는 안된다.

【考察】 色이 서로 異하지 않는 것은 毒이 있으니 먹을 수 없다.

鷄不可共葫蒜食之_니 滯氣_라

【國譯】 닭은 葫蒜와 함께 먹어서는 안된다. 滯하게 된다.

【校勘】 ① 葫蒜 : 大蒜(큰 마늘)

【考察】 계란 흰자를 마늘과 같이 먹으면 短氣하게 된다.

山鷄_는 不可合鳥獸肉食之_라

【國譯】 山鷄는 새고기나 짐승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된다.

【校勘】 ① 山鷄 : 雉 (꿩 ‘치’)

雉肉_을 久食之_{하면} 令人瘦_라

【國譯】 꿩고기를 오랫동안 먹으면 신체가 야윈다.

鴨卵_은 不可合鱉肉食之_라

【國譯】 물오리 알은 자라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된다.

【考察】 鴨卵은 性이 차가워서 冷氣를 發하고 鱉肉도 性이 차서 冷氣를 발한다.

婦人妊娠에 食雀肉_{하면} 令子淫亂無恥_라

【國譯】 부인이 임신중에 참새고기를 먹으면 아기로 하여금 淫亂하게 되게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게 한다.

【校勘】 ① ‘食雀肉’ 아래에 ‘飲酒’ 二字가 있는 것도 있다.

雀肉_은 不可合李子食之_라

【國譯】 참새고기는 자두와 함께 먹어서는 안된다.

【考察】 雀肉은 壯陽益氣 하는데, 李子의 酸澁함을 만나면, 熱性이 不行하므로 함께 먹을 수 없다.

燕肉勿食_{하니} 入水爲蛟龍所啖_{이라}

【國譯】 제비의 고기는 먹어서는 안된다. 물에 들어간 경우 蛟龍에게 먹히게 된다.

【考察】 燕肉에는 毒이 있으니 먹으면 안된다. ‘入水爲蛟龍所啖’ 라 한 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鳥獸有中毒箭死者_는 其肉有毒_{이라}

解之方_{이라}

大豆煮汁 及 鹽汁_을 服之_{解_라}

【國譯】 새나 짐승으로서 毒矢에 맞아 죽은 것은 그 고기에 毒이 있다.

이 고기를 먹고 中毒된 경우를 다스리는 處方 ‘大豆의 煮汁 및 鹽汁’을 服用하면 毒이 풀어진 다.

【字句解】 ① 箭 : 화살 ‘전’

② 大豆 : 黑大豆

【考察】 黑大豆는 解毒에 큰 長點이 있다.

IV. 結 論

『金匱要略·禽獸魚蟲禁忌并治篇』 중 “禽獸禁忌并治”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古人들은 攝生에 服藥과 동시에 飲食의 衛生과 禁忌問題도 중요시하였다.
2. 各 계절에 相應하는 臟器를 克하는 五味는 攝

取를 禁하였다.

3. 각 계절에 相應하는 臟器를 攝取함을 禁하였는데, 즉 春不食肝하고 夏不食心하며 秋不食肺하고 冬不食腎하며 四季不食脾한다고 主張하였다.
4. 心臟은 神이 머무르는 장소이기에 飲食으로 攝取함이 不可하다고 강조하였다.
5. 肉類 및 鳥類의 禁忌와 그 신선도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方法을 제시하였다.
6. 腐敗한 肉類 및 鳥類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病症과 해당 治療法을 제시하였다.
7. 宮合이 서로 맞지 않아 함께 먹으면 害가 되는 飲食들에 대하여 說明하였다.
8. 怪異한 形狀을 하고 있는 動物들의 고기는 먹지 말라고 警戒하였다.
9. 馬肉과 牛肉에 대하여 자세하게 說明하였는데, 馬肉 中毒時에는 香豉와 杏仁을 달여 먹고, 牛肉 中毒時에는 甘草를 달여 먹어 解毒하는 藥物 治療方法을 제시하였다.

司, 中華民國 65年.

8. 明·李時珍, 李時珍醫學全書·本草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參 考 文 獻

1. 王琦,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補社, 1983.
2. 王玉興, 金匱要略方論校注語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 徐彬, 金匱要略論注(中國醫學大系), 麗江出版社, 1987.
4. 清·吳謙,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5. 丹波元簡: 「金匱玉函要略輯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6. 隋·巢元方 원저, 丁光迪 교주, 諸病源侯論校註,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7. 唐·慎微, 證類本草, 타이베이, 南天書局有限公